

목장교재 목자용 목자지침서
<예수님이 놀란 믿음>

2/10(주일) 설교 내용

마태복음 8:5-13

1. 백부장은 “내가 가서 고쳐 주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8 절과 같이 대답합니다. 도대체 무엇때문에 그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 설교를 토대로, 예수님도 깜짝 놀랄 만한 이런 고백이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

자신의 집에 오시겠다는 예수님을 마다할 수 있었던 것은,
백부장에게는 예수님의 권세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기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능력을 그는 신뢰했었던 것입니다.

목원들과 나눔을 해주실 때,
‘내가 만약 백부장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라는 질문을 던지고
몇몇 분들의 생각을 들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2. 백부장은 자신의 문제가 아닌, 하인의 병을 위해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을 위해 기꺼이 엎드릴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또 내 기도 가운데,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는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나요?

성경에서 대부분 예수님께 치유를 받았던 사람들은,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직접 예수님께 나아왔던 사람들입니다.
간혹 다른 사람의 문제를 대신 가지고 나아온 사람도 있었으나,
그들은 대부분 가족이나 친구를 대신해서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의 백부장은 ‘하인’을 위해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을 위해 엎드릴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가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중보기도의 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중보기도를 통한 은혜를 경험한 적이 있다면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내가 누군가를 위해 중보한 것도 좋지만, 중보기도의 빛을 진 경험도
좋습니다. 그리고 목장안에서도 함께 중보하자고 격려해 주십시오.

3. 우리가 오늘 말씀 속의 백부장에게 배울 점은 많이 있습니다. 내가
만약 백부장의 위치에 있다면, 오늘 말씀에서 나에게 가장 약한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
(중보기도의 힘에 대한 신뢰, 예수님의 권세에 대한 확신, 아랫사람을
사랑하는 긍휼의 마음, 집에 방문하지 않으시고 말씀만으로도
치유하실 수 있다는 신뢰 등)

오늘 말씀에서 백부장에게 배울 점은 많습니다.
위에 열거된 내용들은, 비슷해 보이나 미세한 차이들이 있습니다.
목원들과 함께 ‘나는 백부장에게 배워야 할 점이 무엇인지’
솔직하게 나눌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목자가 먼저 ‘솔직하게’ 나눔을 실천해 주신다면,
목원들도 자연스럽게 나눔에 동참하게 되지 않을까요?